

우리 '책' 들

이문환

소설가

“정적 정보 모드와 동적 정보 모드를 우리 인간이 직접 전환하도록 해둔 것은 얼핏 보기에 꽤 불편한 것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정보 습득의 효율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적 정보가 대부분일 경우는 아예 정적 정보를 받아들이도록 스스로의 인터페이스를 조절 해놓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정적 정보와 동적 정보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혼합된 상태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정보 모드를 교체해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정보 습득의 효율성을 위해 모든 정보를 동적인 정보와 정적인 정보로 분류해두고 있습니다.”

기어 변속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라고 저 눈동자가 또릿또릿한 어린 소년들에게 이야기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 저들은 자동차 운전이란 게 뭔지 모를 것이다. 물론 저 중에선 자동차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는 아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은 최고 수준의 '책' 들로서, 동적 정보 모드와 정적 정보 모드를 최대한 빠르게 전환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알고들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도서관을 졸업하기 전에 정보 모드를 얼마나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 받아야 합니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여러분의 등급이 매겨지고, 그것이 곧 여러분의 가치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여전히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보실에 가서 일단 정적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훈련부터 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내 말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책상 안에 가만히 밀어넣고, 그 길고 검은 제복의 자락이 땅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조심해하면서 마치 가지런히 줄을 치듯 교실 밖으로 하나둘 빠져나갔다. 이 수업이 오늘, 이번 주의 마지막 수업이다.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며, 수업 끝나고 혜정과 만나기로 했던 약속을 상기해 보았다. 오늘은 내 생일이고, 혜정은 나를 위해 귀한 선물 하나를 구해놓았다며 자랑을 했다. “물론 주기 전까진 비밀이지.”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녀 생일에 무슨 선물을 했더라? 아. 아직 우리가 사귀는 지는 1년이 채 못되었다.

딩 빈 교실에서 나와 혜정과 만날 장소로 걸어가는 동안, 상급반 학생들에게서 인사를

받았다. 어른스러운 골격을 갖추고 있는, 창백한 얼굴에 정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엄숙함이 막 깃들기 시작한 '책' 들이었다.

“우리 사회는 하나의 커다란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수한 도서관들은 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입구 (gateway)입니다. 또, 우리 '책' 들은 (나도 '책' 계층에 속한다) 그 네트워크 내의 정보흐름을 연결하는 입구의 일부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나에게 인사했던 학생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책 윤리' 과목의 첫 시간에 하는 말이다. 그리고 진도를 좀 더 나가게 되면 ...

“우리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입구이자, 정보 흐름을 전달하는 토큰(Token)으로써 작용합니다. 토큰이란 컴퓨터 네트워크의 형태를 다루는 데서 비롯한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을 것이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책' 들은 정보교환의 매개체이기도 하고, 정보전달의 수행자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며, 타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그것의 의미,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인간이 타인 및 사회조직과 관계하며 일어나는 수더분한 일들 - 법륜적이거나 도덕규범적인 - 의 해결방법에 대해 가르쳐주는 역할을 맡는다.

이주 옛날에는 '책' 이란 종이에 인쇄된 정보체를 가리키는 단어였다. 물론 지금도 그런 고전적 형태의 정보체는 존재하며, 그것 역시 '책' 이라 불리기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우리를 '책' 외에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책을 읽거나 하며 정보를 습득해서 그 의미를 해독해내고, 분석해낼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그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곱게 씹어낸 정보를 수용하기만 하면 된다. 역사가들은, 우리 '책' 계층은 20세기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20세기의 변호사, 회계사, 정신분석가, 집필가 등 정보를 다루는 모든 직업들을 하나로 뭉뚱그린 존재는 유래없는 것이라고 한다. 컴퓨터 및 인지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체내에 정보의 입출력 및 처리를 담당해주는 컴퓨터 장치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장치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몇십배는 더 뛰어난 정보처리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바로 이 장치의 개발이 우리 '책' 계층 ... 독서인구(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다)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혜정과와 데이트는 근사했다.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불을 밝혀놓은 듯한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 만났을 때, 만나기 전의 일, 만난 후의 일, ... 우리는 소설을 쓴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소설쓰기는 정보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내는 능력을 기르는 데 좋은 훈련이 된다.

혜정이 나를 위해 준비한 선물은, 다름아닌 소설책이었다. 우리 '책' 들 중에서도 자신만의 도서관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그들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혜정이 준 것은 단순한 장서 이상의 가치가 있는 ... 희귀한 초판본이었던 것이다. 놀랍고도 뻔뻔스럽게도 말이다.

“이건 이문환의 첫 단편집, 그것도 초판 1쇄잖아? 이걸 어디서 구했지?”

혜정은 그저 생글생글 웃기만 했다. ❖

달러, 사용자는 모뎀을 이용해 소프트북 프레스 라이브러리에 접속,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다. 한달 기본요금은 9.95달러. 스크린으로 책을 읽은 후 내용을 다운로드받거나 프린트할 때는 부가요금을 내야 한다.

뉴오비미디어사의 '로켓북'은 '소프트북'보다 크기가 한 손에 들 수 있을 만큼 작고 무게도 0.6kg에 불과해 '전자책의 문고판'이란 애칭이 붙었다. 소프트 북의 배터리 용량이 4시간 30분인데 비해 로켓북은 17시간 연속사용이 가능하다. 단 단말기 가격이 499달러로 상당히 비싸다. 소프트 북과 달리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는 점도 다소 불편한 부분이다. 사용자는 로켓북과 컴퓨터를 연결한 다음 랜덤하우스, 세인트 마틴스 출판사 등의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 책을 읽을 수 있다.

ED데디케이티드 리더의 가장 큰 특징은 종이책처럼 양면으로 돼있다는 점. 에이버리 복사기 개발자인 제품으로 내년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두개의 스크린을 펼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종이책 형태에 가장 가깝다. 이 제품을 발명한 덴 머니언은 “스크린이 한개뿐인 전자책은 진정한 의미에서 '책' 이 아니며 판(板)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책은 인쇄·운송·보관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절감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최대장점이다. 특히 소수의 독자들만을 겨냥한 학술서적, 전문지 출판에 적합하다. 출판전문가들은 전자책이 정착되면 절판된 책이 거의 없어지며, 전문 출판사들을 위한 틈새시장이 발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론상으로는 독자가 1명뿐인 책도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아직은 소프트웨어

가 부족하기 때문에 활자책을 전자책용으로 재입력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전망이다.

독서형태도 크게 변할 것이 틀림없다. 독자입장에서 전자책은 우선, 스크린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불을 켜지 않고 읽을 수 있다, 둘째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 셋째 서점까지 갈 필요 없이 집에 앉아 신간을 읽고 살 수있다 등 여러 장점들이 있다. 그러나 여름 휴가철 햇빛이 내려쬐는 해변가에서 선택하거나 욕조에 몸을 담그고 독서하길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전자책이 마땅치 않을지도 모른다. 왜냐면 전자책은 너무 환한 곳에서 단말기 스크린의 글자들이 잘 보이지 않고 습기와의 상극이기 때문이다. ❖